

투데이 칼럼

### 전북 민간 소공연장 협회 설립에 거는 기대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소공연장을 통해 풍부한 일상과 문화생활을 누려왔고, 우리는 아직도 유럽 등에 비하면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 미미한 실정이다. 이제 막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무대를 지켜왔던 전북 지역 민간 소공연장 운영자들이 마침내 '전북 민간 소공연장협회'라는 이름으로 첫 공식 연대를 이루어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은 실로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하다. 이는 전북 공연예술 구조 전환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 전주 문화공간 이룸(이사장 이윤경)에서 열린 출범식은 그동안 개별 공간 단위로 수많은 어려움을 버텼었던 민간 소공연장들이 이제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방향성을 선언한 자리였다고 본다.

출범식의 문을 연 웅장한 대북 공연은 각자의 리듬으로 버텼던 이들이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힘을 합쳐 큰 박동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상징적인 출발의 의미를 담아내며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이윤경 이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사장은 민간 소공연장이 "단순히 공연을 올리는 공간을 넘어 예술가와 관객, 지역과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연결하는 문화의 최전선"임을 강조해서 주목받았다.

실제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소방안전위원회 위원장,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최무연 전북예총 회장, 이창선 전북민예총 이사장, 유병철 아시아뉴스전북 대표이사, 홍승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등이 행사에 참여하여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이경운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연장의 역할을 치하했다. 이처럼 지역 내 주요 정·관·예술계 주요 인사들 역시 민간 소공연장이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협

회 출범에 대한 큰 기대감을 전했다.

이제 민간 소공연장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함께 문화정책을 설계해야 할 주제로 바라보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협회의 출범이 전북 공연 예술계가 '각자 버티는 구조'에서 '함께 설계하는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윤경 문화공간 이룸 이사장은 "이제는 각자의 공간을 지키는 데서 나아가 함께 구조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전을 밝히며, 앞으로 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공동의 플랫폼이 되도록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협회는 민간 소공연장 운영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고,

공연장 기반 예술인 및 문화예술 인력 일자리 구조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기대가 된다. 특히 공동 기획과 공동 홍보를 통한 공연 유통 활성화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필수적인 노력일 것이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힘을 합쳐 연대를 시작한 전북 민간 소공연장협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열매를 맺는다면, 이는 전북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출범식에서 공연장 운영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침으로써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곧 무대'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었듯, 이제는 공공과 민간, 공연장과 예술인이 경계를 넘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 민간 소공연장협회가 그간 이룬 소중한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가까운 곳에서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설계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전북 민간 소공연장협회의 활성화로 이 단체 구성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결국 이러한 문화 향유의 혜택은 결국 우리 전북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 사설

#### 쌍방울그룹의 북한 공작원과 회합

해킹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북한 공작원과 만난 혐의 등을 받는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7단독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법정에서 쌍방울그룹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중국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논의하거나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불법적인 게임 영업 수익을 벌려는 공범의 부탁을 받고 이미 알고 있던 공작원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남 공작원과 접촉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 PC를 감염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방 전 부회장 등은 운전기사나 렌터카 제공 등의 편의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중립 안전 등에 대한 위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킹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못해 현실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전 부회장은 "북한 공작원과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다."

#### 국힘 당무감사위, 친한계 전 최고위원 중징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처분을 권고한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성경을 인용해 누굴 쳐 죽인다고 헛소리한 건 정계 대상이 아닌가"라며 "본인 발언은 면책이나"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당 윤리위가 당무 감사위의 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가져분을 신청하겠다"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누가 올랐는지 시비를 가려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 제기된 당에 대한 명예훼손, 당 대표 폄하, 당원 모욕, 신천지 비하 등 모든

내용에 단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누가 헛소리하고 있는지 판단하실 것이다. 신천지를 사이라고 했다고 공격받는데 너무 기이하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민주주의를 둘로 쳐 죽이려는 자들에 맞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종혁 위원장을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2025년 9~10월 다수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다"면서 "당원을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과, 망상에 빠진 사람들도 정신 질환자에게 비유했다"고 설명했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트럼프 "신에 프리깃함 건조, 한국 한화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미러리코 별장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해군이 발표한 신에 프리깃함(호위함) 건조는 한국의 한화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료 보조금 철폐에 항의하는 볼리비아 광부들



22일(현지 시간)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광부들이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의 연료 보조금 철폐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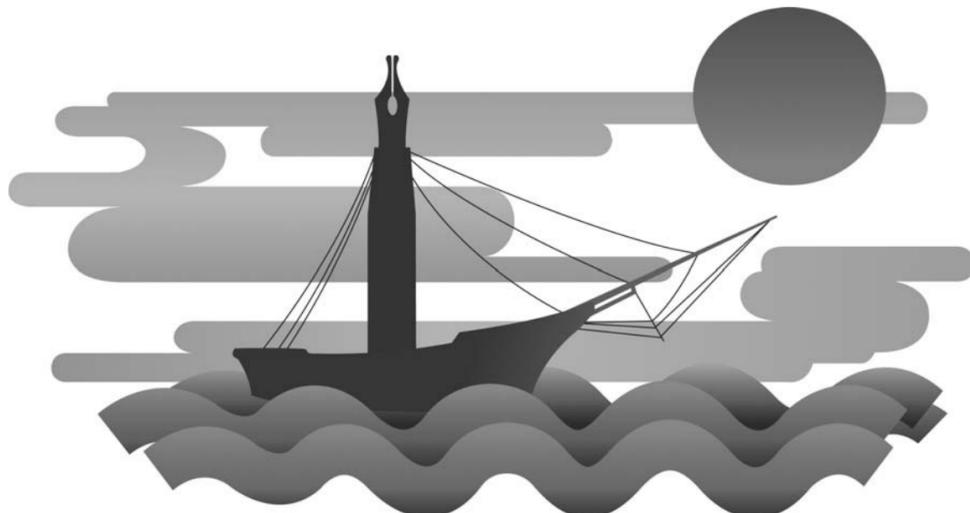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